

메피스토 펠레스와 컴퓨터

요즈음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最小한 主記憶容量에서 만큼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60年代初 國內에 디지털 컴퓨터가 처음 선을 보일때만 하여도 主記憶容量은 4~8KB 정도가 고작이었다. 業務도 단순한 集計報告書作成이나 事務會計管理였다.

당시의 프로그래머의 苦衷은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節約하느냐에 시간이 많이 허비하였다.

하기야 記憶素子인 CORERING을 하나하나 수공으로 엮어 짜넣어야 하였던 때의 메모리單價는 지금처럼 機械的 工程에 依하여 大量으로 찍어내는 集積回路方式에 比하면 가히 금싸라기라 하겠다.

記憶素子の 低廉化和 함께 高速化, 集積化가 이루어지면서 컴퓨터의 應用分野가 매우 다양해졌다.

초기의 BATCH(一括處理方式)에서부터 良質의 通信回線은 LAN(地域間通信網)의 實用化和 VAN(附加價值通信網)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이용기술은 高度通信技術에 힘입어 大型 컴퓨터가 격리된 電算室의 벽을 깨고 우리 주변까지 接近浸透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生活周邊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접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 人間의 文化, 傳統, 慣習, 秩序는 물론 價值概念에 까지 영향을 주면서 오히려 人間 感性의 領域에까지도 擴

김학구
청호실업(주) 전무이사



大 適用되고 있다.

세시 풍경 중에 길가에 돛자리 펴고 앉은 토정비결 할아버지의 모습이 PC로 바뀌었다.

한데 어울려 뛰놀던 발달한 少年少女의 모습들이, 탁한 공기속의 電子娛樂機를 상대로 열심히 동전 싸움을 벌이고 있다. 試驗採點이 客觀式化 되어 컴퓨터를 試驗官으로 모시게 되었다.

컴퓨터는 어느덧 인간의 領域을, 役割을 많이도 차지해 가고 있으며 當然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컴퓨터피아는 컴퓨터와 인간과의 均衡있는 役割分擔에서 設計될 수 있는 理想郷이다. 人間の 尊嚴性和 基本領域마저 컴퓨터에 讓渡하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펠레스와 같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역태까지 인간의 文明이 이처럼 도전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컴퓨터가 高度의 知的產物이며, 여기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밀집된 인간의 지능이 합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창 AI(人工지능)의 연구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컴퓨터 應用技術과 소프트웨어의 量產公害로부터 인간의 기본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公益性, 倫理性에 근거하여 한번쯤 開發段階에서 再考되어야 하겠다.